

# “15승 달성... 맞더라도 자신있게... V11, 우리가 있다”

KIA 투수 김진우·차명진 광주 새야구장서 새해 새출발 포부



2014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시대가 막이 오른다. 위기의 KIA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베테랑 김진우와 새비람을 일으킬 루키 차명진이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서서 V11을 향한 새해 각오를 다졌다.

KIA의 우선 지명을 받던 날 차명진에게 “어느 선배를 가장 만나보고 싶느냐?”는 질문을 했었다. 차명진은 한치 망설임 없이 김진우를 꼽았다.

차명진이 소원성취를 했다. 선발차에서 지켜보기만 한 하늘 같은 선배. 그 선배와 챔피언스 필드에 나란히 서서 2014년의 각오를 다지고 커브 비법도 전수 받았다.

새 역사가 시작되는 2014시즌. 위기의 KIA 마운드를 지킬 차세대 에이스 그리고 셋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진우와 차명진 두 사람이 만났다.

### ◇타고난 천재? 노력형 띠동갑!

인터뷰 시작부터 묘한 웃음이 터졌다. 얘기를 할수록 ‘평행이론’이었다. 1차 지명을 받아 프로에 발을 내디딘 김진우와 차명진, 알고 보니 돼지띠 띠동갑이다. 1983년 3월7일생인 김진우는 2002 드래프트에서 KIA의 1차 지명을 받은 진흥고의 괴물 투수. 193cm의 키에서 내리쬐는 묵직한 직구와 폭포수 커브. 7억원이라는 계약금이 그를 대변한다.

5년 만에 부활한 1차 지명. 효천고 에이스 차명진은 KIA의 선택을 받아 고향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 188cm 장신의 투수가 던지는 140km 후반의 직구와 커브·슬라이더가 눈길을 끌었다. 김진우와 12년의 시간을 두고 후배가 된 차명진은 1995년 3월3일생이다.

몸만 좋은 평범한 선수였다는 차명진의 고백에 “나랑 똑같네”라는 김진우의 맞장구가 이어졌다. 차명진은 “유격수 빼고 가란대로 다 가봤다. 중학교 때 스트라이크를 못 집어넣으니까 그냥 스윙이나 하라고 하겠다. 본격적으로 투수를 한 것은 고등학교 때다. 키가 크니까(웃음)라며 “3학년 전력이 좋지 않아서 기회가 많았다. 그러다가 스피드도 나오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129km의 스피드는 경기를 하면서 138km까지 늘었다. 2학년 땀 140km 초반을 기록했고 진짜 투수로 거듭난 3학년에는 148km을 던지는 파워피처가 됐다. ‘괴물’ 김진우도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김진우는 “나랑 똑같다. 투수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고등학교 때다. 포수도 하고 유격수 빼고 다 가봤다. 우리 팀도 3학년 전력이 약해서 1·2학년이 시합에 나갔다. 투수가 없다 보니 경기에 많이 나갔고 요령과 스피드가 생겼다. 처음엔 130km대를 던졌는데 청소년 대표팀에 가서 154km까지 기록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투수가 아니었다는 김진우의 뒤에는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김진우는 “타고난 천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기들이 야구를 잘해서 1학년 때부터 나뉘고 6명이 주전으로 뛰었다.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기에 살아남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다”며 “팔 스윙도 스피드도 빠르지 않았다. 혼자 박스 채 썰어놓고 공을 던졌고, 손목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손을 옆으로 굽힌 채로 끈으로 묶고 잠을 자기도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게 특별한 에피소드도 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 모임에서 진행됐던 경품 추첨행사. 추첨자로 나선 김진우는 그 많고 많은 선수 중에서 차명진을 뽑았다. 덕분에 차명진은 부모님께 제주도 여행권을 선

물하며 효도를 했다. 김진우는 “뽕고 보니 차명진이라”며 한참을 웃었다.

### ◇차명진, 김진우의 커브를 탐내다.

차명진이 김진우를 만나면 꼭 묻고 싶다면 ‘커브 비법’. 김진우가 마침내 공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커브를 이야기했다.

김진우는 “그림은 잡는 취향에 따라 다르다. 던지는

## 1차 지명 입단

### 노력형 파워피처

### 너무나 닮은 띠동갑

### “커브 배우고 싶어”

### “손목을 많이 써라”

### 선후배의 유쾌한 다짐

순간 손목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교 때 매듭을 걸쳐 잡아 141km까지 던졌는데 컨디션에 따라 제구가 안 되기도 했다. 지금은 카운트 잡을 때 공을 꼭 잡은 뒤 중지를 띄우고 던진다. 손목이 접어진다든 생각으로 직구라는 느낌으로 공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김진우가 강조한 커브비법은 ‘손목’. 주의사항도 있었다.

김진우는 “스핀으로 빙겨서 던지는 선수들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던진다. 나는 공을 꼭 잡고 누르는 스타일인데 빙기는 스타일이면 나처럼 던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들은 커브를 던지는 스타일로 닮았다. 차명진은 “나도 (공을)누르는 스타일이다. 커브는 126km까지 나왔다. 선배님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됐다. 손목을 강조하신 게 인상적이다. 나는 손목을 쓴다기보다는 손가락으로 눌렀다. 손목 운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웃었다.

김진우는 노력과 유연성도 얘기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공을 던질 것을 주문했다.

김진우는 “1학년 때 직구와 커브만 던졌는데 스피드가 얼어 맞기 좋았다. 공을 놀러보기도 하고 팔꿈치

로 빙겨보기도 하면서 내 방법을 찾았다. 어떻게 던져야 한다는 답은 없는 것 같다. 다양한 그림과 방법으로 던져보면서 공이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팔의 느낌을 봐야한다. 팔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나가야 부상 없이 자기만의 공을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뜻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김진우는 “하프 피칭을 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유연성이 떨어지는 편이라. 탄력있게 나오지 못하고 팔이 짧게 나온다. 힘은 좋으니까 공을 때리는 맞은 있다. 유연성·복근 운동은 바보 운동이라고 한다. 하면 하는데 하지 않으면 원상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보 같이 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 부상과 연관이 있는 만큼 유연성 운동을 많이해야 한다”며 “또 어린 선수고 직구에 힘이 있으니까 변화구에 욕심내지 말고 ‘나는 파워피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다. 빙가를 자꾸 장착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라”고 강조했다.

◇새 경기장에서의 새 출발, 그 중심에 그들이 있다. 2014년은 김진우에게는 불안한 시선을 털어내고 에이스로 우뚝 서야 하는 시간, 차명진에게는 꿈을 이루게 되는 출발의 시간이다.

처음 서본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 유난히 홈 플레이어가 멀어보인다고 웃던 김진우는 “15승 이상이 내 목표다. 구체적 승수를 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10승 했다고 좋아하는 내 모습이 이제는 화가 난다. 15승 이상, 2점대 중반~3점 초반의 방어율이 목표다”고 말했다.

첫걸음은 완벽한 스프링캠프다.

김진우는 “캠프 때 팔꿈치, 어깨가 좋지 않아서 공을 많이 못 던져서 지난 후반기에 부진했던 것 같다. 초반에는 힘이 있어서 버텼는데 밸런스가 흔들리니까 걸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이번 캠프에서는 무조건 많이 던지겠다”고 밝혔다.

가슴 펴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차명진의 목표는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다.

차명진은 “지난해 집에도 안가고 야구만 했다. 프로의 꿈을 이뤘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마운드에서야 진짜 꿈이 이뤄지는 만큼 무조건 1군에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 맞을 때 맞더라도 자신있게 또 후회 없이 내 공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자신을 닮은 띠동갑 후배. 김진우 입장에서는 닳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 마지막으로 차명진에게 강조한 것은 마운드에 대한 간절함이다.

김진우는 “입단 당시 선발이 많이 비웠고 어린 선수가 적어서 운 좋게 기회를 잡았다. 지금이라면 부담이 될 텐

데 그뻐 겁없이 했다. 그런데 사회생활도 하고, 사고도 치고 야구를 그만 두기도 하면서 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겁없이 어린 선수답게 야구를 하면 좋겠다”며 “투수는 마운드에 서야 한다. 그래야 차명진이다. 아무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들어온 선수라도 마운드에 없으면 잊혀진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차명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새해 덕담을 건넸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솔직담백하게 털어놓은 선배와 그의 얘기에 “신세계를 본 것 같다”는 후배.

새 출발선에 서게 된 KIA의 2014시즌, 김진우와 차명진이 희망을 던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진우 (우투우타)  
193cm 95kg. 1983년 3월7일생.  
서석초-진흥중-진흥고. 2002년 1차 지명



차명진 (우투우타)  
188cm 90kg. 1995년 3월3일생.  
순천북초-이수중-효천고. 2014년 1차 지명